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 주요 지역경제의 변화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Tel: 3460-1085)

주요 내용

- ▣ NAFTA 이후 피해집단 또는 이익집단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멕시코 각주의 정책담당자를 심층 면접하여, 피해 또는 이익의 실체, 원인,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함.

 - 현지조사지역
 - o Baja California Norte: 무역자유화 및 NAFTA로 제조업(마킬라도라)이 이익을 본 미국 접경지역의 주
 - o Guanajuato: 제조업이 타격을 받은 중남부지역(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의 주
 - o Sinaloa: 농업부문에서 이익을 본 북부지역(미국에 신선채소류 수출 농가 및 유통업체)의 주
 - o Chiapas: 농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부지역(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 사용)의 주
- ▣ NAFTA 이행 이후 각주의 경제 변화에 대해, 주정부 정책담당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별 특성에 입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교역(수출), 외국인투자(FDI) 증가, 고용 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함.
 - o 장기간의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많은 멕시코 기업이 NAFTA 이후 도산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웠다고 평가함.
 - o NAFTA 이행이 1994년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함.
 - o 무역자유화 이전 보호주의 체제에서 주요 경공업지역이던 Guanajuato는 개방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GM과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 및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최근에는 FTA의 수혜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4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NA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 정책의 추진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임.

- 과거 장기적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 아래 안주해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및 공동체 전통 아래 뿌리 내린 농업구조 등 역사적으로 고착화 되어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함.

○ 비경쟁적 제조업 및 농업 생계농의 피해는 자연적 현상으로 시장개방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 2001년 이후 나타난 경제성장 둔화는 무역자유화보다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당하거나 위기 직전까지 내몰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안정적이었음.

○ 최근 제조업부문에서의 어려움은 중국요인에 기인함.

- NAFTA 이전의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을 볼 때 FTA가 아니었더라도 미국시장과 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지속되었을 것임.

■ 그러나 FTA를 비롯한 무역자유화 정책이 임금 및 실질소득 악화, 산업간 및 지역간 양극화 전개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함.

■ NAFTA 이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 등 각종 부정적 현상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함.

- 멕시코와 비교하여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으며, 기술과 제도도 멕시코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한·미 FTA 협상 권고사항

- FTA 협상과 관련하여 각계각층 의견수렴의 중요성과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노력을 강조함.

-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권고함.

-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등 FTA 이행과정에서의 피해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시행을 권고함.

<인터뷰 내용>

- NAFTA에 대한 멕시코 현지의 평가를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뷰 내용을 전재함.

1. Baja California Norte

□□ 면담인사: Octavio J. Corona Flores(띠후아나市 경제개발부 대표)

Manuel Rodríguez Monarrez(경제개발부 산업개발팀장)

□□ 면담일시 및 장소: 2006년 5월 22일(월), AM 12:00, 띠후아나 시청 경제개발부

1) Baja California Norte 주와 Tijuana 시의 경제사정을 설명해주십시오. 시장개방, 특히 NAFTA를 전후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해주십시오.

-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주 중 하나인 Baja California Norte는 정치적으로는 멕시코 연방정부와 밀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California 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주의 경제는 특히 NAFTA 이후 국경무역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1일 3천 대의 화물트럭(연 140만 대)이 국경을 통과하면서 멕시코 총무역액의 20%를 수송함.

- Baja California Norte의 2005년 무역규모는 250억 달러로, 국내 제2의 대미 무역 주임.

- 예를 들면 국경도시인 Tijuana는 1970년대 도입된 임가공수출산업(마킬라도라)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고,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며, 상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으로 성장함.

- 9.11 테러사건 이후 강화된 미국의 안보정책, 경기침체, NAFTA 규정에 따른 특혜제도 폐지, 중국의 진출 등으로 마킬라도라 산업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연방정부, 주정부, 시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마킬라도라 기업들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에 있음.

- 이러한 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볼 때 국내자본이 중심이 되어 성장하고 있는 Nuevo

Leon(Monterrey), Guadalajara, Mexico 등과 더불어 Baja California Norte는 비록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지지만 FTA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주임.

- 제조업 이외에도 Baja California Norte는 Sinaloa, Veracruz, Colima와 더불어 농업에서도 FTA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주로 평가됨.

2)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내 및 개인적인 평가는?

- 옥수수, 설탕, 곡물, 수송산업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됨.

- 장기간의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많은 멕시코 기업이 NAFTA 직후 도산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웠음.

- 특히 1994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NAFTA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위기를 조기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됨은 물론 멕시코 대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됨.

3) 1994~96년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 세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③-④-②

- ① NAFTA 이행
- ② 외환위기 (폐소화 절하) (3)
-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1)
- ④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의 모순 잔존 (2)
-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 ⑥ 미국경기침체

4)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긍정적 효과>

-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바탕으로 한 교역 증가

- 미국의 제2 교역국으로 부상
-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기업들도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활동에 참여

■ 외국인투자 증대

■ 외국인투자로 제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고용창출

〈부정적 효과〉

- FTA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음.

5) 1985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FTA 영향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부재에 원인이 있음.

- 2000년에 멕시코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 사실상의 정권교체를 이룩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진보이지만 그 경제적 대가는 컸음.

- 즉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던 각종 구조개혁정책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없었음.

■ 지난 5년 6개월간(폭스 대통령 재임기간) 구조개혁정책 실종에 따른 대표적인 경제적 비용은 사회불안정, 특히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 것이었음.

- 멕시코 사회보장기구에 따르면 공식부문으로의 신규고용 혹은 고용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한 반면, 비공식부문(자영업 포함)으로의 고용은 증가함. 멕시코는 연간 100만 명의 신규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함.

- 비공식 경제의 성장은 세제 감소로 이어지고, 미흡한 고용창출은 노동인구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수출산업(마길라도라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심지(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마길라도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기술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역간 양극화 및 그에 따른 빈곤 등 사회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함. 그러나 FTA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결합을 향한 연방정부의 정책들과 새로운 공공정책들이 북부지역을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음. 특히 Tijuana에서 Matamoros에 이르는 전체 접경지역에 들어선 주요 마길라도라 기업들이 고용 창출과 유지에 일조하였음.
- 반면 농촌으로부터 이동한 인구를 포함하여 총인구의 70%가 밀집한 중부지역에서는 수많은 사회문제(실업, 빈곤, 교육, 보건 등)가 대두되고 있음. 연방 및 주정부들은 사회정책은 물론 산업육성정책 등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남부지역에서는 칸쿤(Cancun)이 속한 Quintana Roo 주가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Chiapas, Tabasco, Yucatan 등 다른 지역들은 공공정책(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매년 연평균 185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의 본국 송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별 격차와 절대빈곤을 줄이는 적절한 공공정책수단도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임.

7)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 수출, 현대적 경작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 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역간 농업발전의 격차는 FTA보다는 토지소유제도, 영농방법, 작물 등 전통적인 농업구조에서 비롯됨.

- 면담자는 실질적으로 연방정부가 방기되어 있는 멕시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 실질적으로 주곡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은 멕시코 농민들로 하여금 옥수수, 수수, 두류 등 각종 작물을 적정 재배하고, 농지를 개량하며, 영농기술 습득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등 중앙으로부터의 계획이 전무하다고 평가함.

- 이에 32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각 지역별 농업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지방정부가 경제개발정책에 다른 지방의 농업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들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즉 다른 산업에서처럼 농업부문에서의 지역간 경쟁(동일 작물 재배 등)은 국가 전체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8)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NAFTA 이후 12개 FTA를 추가로 체결하여 시장을 다각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對美 수출이 멕시코 수출의 88%까지 차지하는 등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된 것은 사실임.

- 이러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이 부족한 때문으로 판단됨.

- 대미 의존의 심화는 양국간 정치적 협력관계가 악화되거나 미국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멕시코 경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옴.

- 후자는 FTA의 동조화라는 이론적 분석들에 근거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동시에 2001~03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경험하였고, 부시 정부 출범 1기에 양국간 정치적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겪은 경제난이 전자를 뒷받침함.

- 경제적 의존은 투자와 무역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수출시장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기업들은 FTA가 이미 체결된 국가는 물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또한 미국시장에의 의존성은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는 멕시코 기업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투명한 기준, 고기술, 고급인력, 새로운 문화, 교육, 기업가 정신 등으로 무장된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우선 요구됨.

9) NAFTA 등 기존 FTA에서 미흡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멕시코는 정치적 변화기에 있고, 차기 정부가 등장할 향후 6개월간 현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차기 행정부와 의회는 분명 새로운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비롯하여 현재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경제정책을 법적 허용범위내에서 수립, 시행할 것임.

- 현재 멕시코는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가 FTA와 관련하여 농업부문, 섬유, 설탕 등 민감산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재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전술한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봄.

10) 멕시코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귀하의 비교평가는?

(양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양국의 산업경쟁력에 대한 비교, 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 수출드라이브와 보호주의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발전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왔음.

- 그 결과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한국이 더 높고, 정치경제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앞선 것으로 판단됨.

11) 끝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멕시코와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의 FTA 협상시점을 비교할 경우 멕시코보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더 성숙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FTA 발효 직후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과 멕시코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NAFTA의 각종 부정적 현상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임.
- 오히려 공식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면 이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FTA 발효 이후의 경제적 효과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협상에서 최대의 결과를 획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멕시코가 NAFTA 협상에서 얻어내지 못한 거대경제권과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즉 동등한 게임의 규칙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도국이면서 소규모 경제에 대한 배려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함.
 - 우리는 NAFTA를 반대하는 측이 멕시코가 NAFTA 협상에서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지 못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평가에 주목하고 있음.
- 캐나다가 NAFTA 협상 이전에 미국과 체결한 FTA의 결과 첫해에 2만 5천 명, 두 번째 해에 1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NAFTA 협상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그 사례를 연구, 분석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Guanajuato 주

- ◆ 면담인사: Liliana Rojas Domínguez(과나후아또주 COFOCE 대외무역진흥조정관 겸 국제실 실장), Daniel Melendez Sánchez(Leon市 경제개발부 제도개선 과장)
- ◆ 면담 일시 및 장소: 2006년 5월 23일(화), AM 10:00, 레온시 경제개발부

- 1) Guanajuato 주와 Leon 시의 경제사정을 설명해주십시오. 시장개방, 특히 NAFTA를 전후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해주십시오.

■ NAFTA 이전 주요 경공업지역이던 Guanajuato는 시장개방과 동시에 기존의 보호주의 아래 안주했던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개방정책의 희생지역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GM과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 및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최근에는 FTA의 수혜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Guanajuato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국가 전체보다 높고, 공식부문의 고용 증가율도 연간 1만 5천 명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5년 기준으로 수출도 1994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대미 수출이 8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5년에 경제규모는 33개 주(연방구 포함) 가운데 7위를 차지하였음.

■ 30여 년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경공업분야(신발, 섬유, 봉제 등)는 비록 FTA로 인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었지만 자본확충, 기계화, 독자 디자인 개발, 자기 상표 개발, 유통망 확보 등에 힘썼던 분야는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여 미국, 유럽 등의 시장으로 진출하기도 하였음.

- NAFTA 직후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도 시장개방보다는 1994년의 갑작스런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Guanajuato 주의 농업은 이미 30년 이전부터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농산업분야만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수출, 고용 등)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내 및 개인적인 평가는?

■ 개인적으로 교역, 투자, 고용 등의 측면에서 멕시코 경제에 대한 시장개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경쟁력 향상, 고용증가, 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음.

- NAFTA를 비롯하여 모든 공공정책에 양대 입장이 있음을 인식함.

3) 1994~96년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 세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⑤-③-②

① NAFTA 이행

② 외환위기(폐소화 절하) (3)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2)

④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의 모순 잔존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1)

⑥ 미국경기침체

4)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긍정적 효과>

- 교역(수출) 및 투자유입(FDI) 증대

- 성장률

- 기술진보

<부정적 효과>

- 무응답

5) 1985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그러나 비록 FTA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NAFTA의 주된 성과가 현재 출범 초기보다는 줄어드는 한계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개인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동조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됨.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수출산업(마킬라도라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심지(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마킬라도라 산업의 고부가치화 또는 기술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질문의 각 측면에 내포된 양극화 현상이 멕시코에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함.

- 그러나 현재 양극화의 희생자로 인식되는 부분은 FTA가 아니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희생자가 되었을 것임.

-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마킬라도라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는 Guanajuato 주가 자동차 부품산업의 메카가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7)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 수출, 현대적 경작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 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6번 질문에 대한 동일한 입장임.

- 농업부문의 양극화는 시장개방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임.

- 옥수수 등 생계농의 경우 지원정책 등과 관계없이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임.

- Guanajuato 주의 경우 브로콜리 등 수출 가능 품목을 생산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음.

8)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변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멕시코 기업들의 습관 혹은 문화에 1차적인 원인이 있고, 다음으로는 수출의 경우 많은 부분이 재수입을 전제로 한 미국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시장을 겨냥한 외국투자자들도 증가한 결과임.

-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성 증대는 기존의 수출 및 투자를 극대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미국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석유가격 상승 등)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그 2차적 효과가 멕시코 경제에 바로 미치는 것임.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FTA를 활용하여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는 것인바, 현재로서는 유럽과 MERCOSUR, 중미지역이 주요 시장으로 다가서고 있음.

9) NAFTA 등 기존 FTA에서 미흡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NAFTA를 예를 들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부문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의 보조금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함.

- NAFTA 체제에 한정할 경우 멕시코의 농업은 미국이 제공하는 농업보조금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함.

- 이를 뒷받침하듯이 2003년 농업부문의 추가개방을 앞두고 멕시코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NAFTA 협상 당시 멕시코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함.

-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협상시한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사전에 혹은 협상과정에 FTA로 혜택을

받거나 그렇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10) 멕시코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귀하의 비교평가는?

(양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양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비교, 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 한국경제에 대한 식견이 없지만, 한국경제는 NAFTA 협상직전의 멕시코 경제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경제적으로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국가임.

11) 끝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 견해를 말해주시기 바란다.

한국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멕시코와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NAFTA 이후 멕시코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감안할 경우, 한국이 NAFTA 체결 직전의 멕시코보다 현실적으로 더 나은 조건들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멕시코와 유사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특히 경제위기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제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러한 평가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1995~96년 멕시코의 경제난이 FTA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인했기 때문임. 특히 연방정부의 무능과 금융체제의 취약성 등이 경제위기의 원인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3. Sinaloa 주

◆ 면담인사: Sergio Mario Arredondo (Sinaloa주 경제개발부 산학연계조정관),

Erik C. Dieguez Contreras (경제개발부 경제분석관)

◆ 면담일시 및 장소: 2006년 5월 25일(목), AM 12:00, 주청사 경제개발부

(Culiacan시 소재)

1) Sinaloa 주의 경제사정을 설명해주시요. 시장개방, 특히 NAFTA를 전후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해주시요.

■ NAFTA 이후 Sinaloa 주는 다른 북부의 주들과 더불어 농업 수출이 크게 신장되어 혜택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출구조가 크게 변화되었음.

- 1998년에 제조업 13%, 농축산업 68%이던 수출구조는 2004년에 각각 40%와 51%로 변화되었음.

- 제조업 수출증가의 배경에는 대만,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섬유,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때문인데, 마길라도라 기업은 현재 9개에 불과하지만 일반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최근 2년 사이에 40여 개로 급증하였음.

- 이러한 투자 급증은 수출증가 이외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바, 2005년에만 2만 2천 명이 신규로 고용되었음.

■ 이러한 주 경제구조로 인하여 2005년에는 3.7% 성장에 이어 2006년에는 5.1%의 성장이 전망되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 특히 9.11 테러 이후, 그리고 미국경제 침체와 함께 북부 주요 주들의 수출이 위축되는 현상을 겪었지만, Sinaloa의 경우 마길라도라 기업이 적은 대신에 농업수출이 주를 이루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음.

■ Sinaloa는 1차상품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주인데, 전적으로 FTA의 효과는 아니지만 수출 농산물 대부분이 미국으로, 특히 캘리포니아로 수출됨.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 수출 가운데 약 90%가 채소류로 특화되어 있음.

■ 최근 미국내 중남미계 인구가 급증, 기호변화, 멕시코계 식당체인점 출현(Tex-Mex) 등으로 중남미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 경우 Sinaloa의 농산물 수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4년에 미국 총인구의 14%인 4,042만 5천명이 히스패닉이고, 이 가운데 66%인 2,663만

명이 멕시코계임. 이 히스패닉들의 연간 구매력이 6,300억 달러에 달하고 인구증가율도 매우 높아 중남미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2)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내 및 개인적인 평가는?

- 멕시코에 있어 시장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음.
- 2006년 현재 멕시코의 경제규모(세계 10위), 교역(세계 8위, 중남미 1위) 등의 경제적 성과를 감안할 경우 시장개방정책은 지속되어야 함.
- 2006년 5월 현재 멕시코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주요 정치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차기 정부 및 의회가 어느 정당에 의하여 장악되더라도 개방정책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3) 1994~96년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 세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②-④-⑤

- ① NAFTA 이행
- ② 외환위기 (폐소화 절하) (1)
-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 ④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의 모순 잔존 (2)
-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3)
- ⑥ 미국경기침체

4)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긍정적 효과>

- 규모의 경제(세계 11위 경제 규모) 및 경제성장
- 교역량(수출 및 수입) 및 투자유입(FDI) 증대

〈부정적 효과〉

- 양극화 현상: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
 - 특히 멕시코는 총인구 면에서 세계 10위인데, 이 가운데 5,500만 명이 빈곤층이고 2,500만 명이 극빈층이어서 빈곤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음.
- 5) 1985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NAFTA로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결과로 나타난 경기침체였기 때문에 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러나 무역자유화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음.
 - 또한 미국경기에 동조한 경기침체도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Sinaloa와 같이 미국경기에 민감한 마길라도라산업이 발전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았음.
 - 2001~02년 당시, 현재도 동일하지만 마길라도라 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9개에 불과하였음.
-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수출산업(마길라도라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심지(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마길라도라 산업의 고부가치화 또는 기술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는 세계화의 두 얼굴이라는 점에서 인정함. 주로 지리적 위치 등 각종 장점을 지닌 북부 지역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구비한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이, 내수시장보다는 대외시장을 목표로 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음.
 - 이러한 결과 지역별 고용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졌음.
 - 그러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비경쟁적인 부문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을 수용하는 바이며, 단지 세계화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방안들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멕시코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지 못했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등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한편에서 주장하는 세계화에의 역행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아닐 것임. 멕시코의 자유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함.

■ 마길라도라산업의 고도화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고도의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해외로부터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최근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존의 저부가가치 마길라도라업체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지만, 전자 및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유입되고 있어 오히려 마길라도라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마길라도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고급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7)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 수출, 현대적 경작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 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업에서 지역별, 농가별, 작물별 격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전적으로 NAFTA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멕시코가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농업 및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그 실질적인 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시장개방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미국과의 농산물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은 지리적 장점과 미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작물을 재배, 수출함으로써 수혜자로 자리 잡았고, 소규모 곡물 생산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전락하였음.

- 그러나 수혜자의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 작물 선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면, 곡물 재배자의 경우 전통적인 영농방법과 영농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소규모 생계농이었음.

- 비록 곡물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업부문의 퇴출은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농촌사회의 소득불균형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농촌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의 결과가 누적되어온 것임.

- 농업시장 개방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을 수는 있지만, 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촌사회의 소득지원정책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농규모의 대형화, 자본지원, 영농기술 고도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8)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다양한 FTA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음. 즉 시장을 다각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진출이 미흡함.

- 그러나 새로운 시장에서의 진출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임.

- 또한 미국과 중남미지역을 제외하고 멕시코 기업들의 해외투자 진출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의존성 증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요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음. 상대국의 경기변동에 따라 동반적으로 경기변동을 겪는다는 점임.

- 또한 경제정책에 있어 독립성을 상당 부분 훼손당한다는 점임. 예를 들면 세계화 시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달러 이외의 수단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9) NAFTA 등 기존 FTA에서 미흡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무역자유화는 멕시코 경제발전전략으로 향후 지속되어야 함.

- 이미 농업부문의 추가개방을 앞두고서 2003년 말 NAFTA에 문제가 있음을 모두 인식하였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협상을 통한 개정의 가능성을 전망하기는 어려움.

10) 멕시코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귀하의 비교평가는?

(양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양국의 산업경쟁력에 대한 비교, 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 개인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현시점에서 볼 때 한국은 멕시코보다는 안정된 경제환경에 있고, 기술과 제도 등에서 선진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지 FTA에 대한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임.

11) 끝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멕시코와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경제위기 혹은 경제난과 FTA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따라서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한국경제가 멕시코의 사례와 같은 진로를 겪을 것이라는 예측 혹은 전망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4. Chiapas 주

- ◆ 면담인사: Rubén Garrido Hernández (Chiapas 주 경제개발부 무역담당 차관)
- ◆ 면담일시 및 장소: 2006년 5월 26일(금), PM 14:00, Chiapas 주 경제개발부
(Tapachula 시 소재)

1) Chiapas 주의 경제사정을 설명해주시시오. 시장개방, 특히 NAFTA를 전후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해주시시오.

- Chiapas는 전통적으로 1차 산업, 특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아졌음.
 -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저변에는 육상 및 해상교통체제의 개선과 서비스산업과의 연계가 동반됨.
- 수출상품의 부재, 특히 국제수요에 부응할 만한 상품이 없어 Chiapas 주의 대외수출은 미약함.
 - 비록 대리석, 벌꿀, 옥수수 수출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생산가격과 수출가격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사실상의 입지를 상실한 상태임.
 - NAFTA로 북미시장 진출 가능성도 있었지만, 엄격한 위생검역기준과 같은 장벽과 중북부지역 주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송비용 등은 수출증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
 - 그러나 중남미지역, 유럽 등과의 FTA 발효로 Chiapas 농산물(농산업 제품 포함) 수출의 기회는 증가되고 있음. 특히 과거 과테말라 영토였던 Chiapas 주정부는 북미보다는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Chiapas 경제의 변화는 FTA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평가임.

2)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내 혹은 개인적인 평가는?

- FTA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간주되지만, NAFTA의 경우에는 주 경제와는 거의 무관한 상황임.
- 양극화 현상(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FTA의 영향은 아니며, 양극화 현상도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개발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1994~96년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 세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응답:

④-③-⑤

- ① NAFTA 이행
- ② 외환위기 (폐소화 절하)
-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2)
- ④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의 모순 잔존 (1)
-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3)
- ⑥ 미국경기침체

4)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긍정적 효과〉

- 교역 및 투자 증대
- 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인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부정적 효과〉

- 수출 관련 산업의 지나친 지역편중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도시빈민화 확산, 이농 및 농촌 사회 공동화 현상

5) 1985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1년 이후 나타난 경제성장 둔화는 무역자유화보다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당하거나 위기 직전까지 내몰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안정적이었음.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수출산업(마킬라도라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심지(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마길라도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기술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산업입지와 기업활동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점에는 동조하지만, 그 원인이 NAFTA 등 무역자유화정책에 있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음.
- 수출산업의 주요 입지는 대외무역정책과는 상관없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되며, NAFTA 이전부터 존재했던 마길라도라산업의 운영원리가 낮은 총비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북부지역이 수출산업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 과거 제조업 중심지 혹은 기업들의 도태는 적자생존의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경쟁력이 없는 부문의 퇴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점에서 최근 멕시코가 노력하고 있음.
- Chiapas 주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애로가 있지만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마길라도라 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최종재 조립라인 중심의 산업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단순 임가공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고도화는 어렵다고 판단됨.

7)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 수출, 현대적 경작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 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농 및 공동화 심화가 농촌사회의 불안정을 가중했다는 점에는 동조하지만, 무역자유화 자체가 지역간 농업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점에는 동조할 수 없음.
 -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역사적으로 구축되어온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즉 비경쟁적인 분야의 자연적인 퇴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근 그 공백을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농산업 분야가 대체하고 있음.

- 북부지역 농업 변화가 그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남부지역도 내부적으로 비대칭성을 줄이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Chiapas의 경우 1994년 NAFTA 발효 동시에 농민들이 중심이 된 무장봉기가 발생하여 대외적으로는 최악의 농촌사회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최근에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개선된 사회간접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비대칭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는 무역과 투자 확대가 전국의 농촌으로 확산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함.

8)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NAFTA 이전의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FTA가 아니었더라도 미국시장과 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지속되었을 것임.

■ 그 주된 원인은 생산입지와 관행에 있음.

- 관세문제가 아니더라도 멕시코의 생산입지(저렴한 노동비용, 지리적 인접성 등)는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최대 고려사항이었고, 미국시장 진출에 익숙한 멕시코 기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북미시장 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적었음.

■ 북미시장 의존경제의 효과는 경제의 동조화현상(부정적 혹은 긍정적), 수출시장의 편중화, 수출액 증대의 한계 등임.

- 또한 NAFTA 이외에 체결한 FTA가 주는 혜택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9) NAFTA 등 기존 FTA에서 미흡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멕시코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주정부는 NAFTA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나 수정 혹은 재협상은 연방정부의 몫임.

■ NAFTA 운송산업 개방일정 지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비대칭성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0) 멕시코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귀하의 비교평가는?

(양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양국의 산업경쟁력에 대한 비교, 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 양국 경제를 비교할 위치에 있지 않음.

11) 끝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멕시코와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경제규모 및 구조, 산업경쟁력, 거시경제적 상황, 시대적 차이, 문화 차이, 지리적 위치 등 많은 측면에서 상이한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근거도 취약함.
- 따라서 전망에 그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멕시코의 사례 분석이 가치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FTA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협상과정에서 적극 통과시키는 데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함.